



삼국유사 인물학 유행(遊行)

우리가 <삼국유사>를 읽는 까닭은?

힘의 공백이 가져온 공허함 채워준 역사서

1. 기록의 힘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일 혹은 그 기록이다. 즉 과거로부터 자기 민족이 경험한 일 또는 기록을 말한다. 해서 역사는 인류가 과거에 행한 사건이자 인간 사회가 독자 의 운동 법칙에 따라 발전하여 온 과정이 된다.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정체성을 세워 주고 인식틀을 넓혀준다. 때문에 한 나라의 역사서는 당대의 사가가 평가하고 해석해 온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기록이다. 사마천은 궁형의 치욕을 감당하면서 감옥 속에서 <사기>(100권)를 저술했다. 그의 의식 속에서 궁형은 순간이었지만 역사의 기록은 영원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동양 역사의 아버지가 되었다.

돌이켜보면 하늘은 한 시대의 기록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다. 하늘은 자신의 역사를 감당할 만한 사가에게 역사의 기술 자격을 부여했다. 해서 역사의 기록은 누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직 백성의 명령과 시대의 요청에 부응한 사가에 의해 기술되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의 역사가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역사가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역사가는 역사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과학 등 인간 삶의 현상에 대해 통찰한 사람이다. 그는 인간 역사의 발전법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신의 주제적인 역사 인식에 의해 역사를 기술한다.

일찍부터 한민족은 문자에 대한 인식이 남달랐다. 그러한 인식은 역사 기술에서도 두드러졌다. 우리 역사를 기록한 서책은 고구려의 <유기>(留記, 태학박사李文眞이 <新集>5권으로 요약), 백제의 <서기>(書記, 박사高興)와 <백제신찬> 그리고 신라의 <국사>와 <삼국사> 및 <화랑세기>(金大問) 등과 가야의 <가락국기>(金陽益)이다. 일연(一然; 1206~1289)의 <삼국유사>는 이들 선행 역사서들의 주제적인 집성이자 새로운 대안사서(代案史書)이다. 여기서 '대안'이란 이미 이루어진 어떤 안을 대신할 안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대안사서'란 종래의 사서들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대신할 사서를 의미한다. 때문에 일연의 <삼국유사>는 김부식(金富軾; 1075~1151)의 <삼국사기>를 대신할 사서임을 상징하고 있다. 서명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세 나라의 (정사에서) 빠진 이야기' [三國遺事]란 명명은 이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고려 전기 이래 백성들은 왕권과 문신 귀족 중심의 질서에 익숙해 있었다. 중기에 들어서면서 무신들이 집권하기 시작했고 뒤이어 송나라 중심의 중국 관념이 무너지고 원나라 중심의 중국 관념이 새롭게 대두하고 있었다. 백성들과 지식인들은 무신

들의 집권과 송나라의 멸망 그리고 원나라의 건국을 바라보면서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지금까지의 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주체의 변화와 세계의 변화는 새로운 역사인식과 세계인식을 가능케 했다. 일연의 <삼국유사>는 주류의 붕괴와 정통의 소멸 사이에 생긴 '힘의 공백'이 가져다 준 공허함을 채워준 사서였다. 그것은 대안사서에 대한 요망과 함께 새로운 역사 편찬의 실마리가 되었다.

2. 일연의 살림살이

<삼국유사>의 찬자인 보각(普覺) 국사 일연은 고려 후기에 활동했던 불교계의 고승이다. 그는 분황원효(分皇元曉; 617~686)의 고향이었던 장산(長山)군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의 이름은 견명(見明)이었다. 자는 화연(華然)이었으나 뒤에 일연(一然)으로 고쳤다.

일연은 1214년(9세)에 해양(海陽) 무량사(無量寺)에 기탁하여 공부했다. 뒤에 설악산 진전사(陳田寺)에서 출가한 뒤(14세) 뒷날 구족계를 받았다. 1227년(22세) 이후 승과고시(選佛場)에서 상상과(上上科: 최고 성적)에 합격했다. 그 뒤 수행에 전념하던 중 1237년에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나팔 여초에 전국 각지에 성립된 구산선문 가운데

종래 史書 한계 대신 '대안사서' 세 나라 정사에서 빠진 것 모아 일연의 자유로운 인식 담겨 있어

대 가지산문의 문도로 자리매김 했다.

일연은 계속해서 선사와 대선사의 승계를 거치면서 당대 불교계의 큰 스승으로 우러름을 받았다. 1249년부터 수년간 남해 분사도감의 주맹(主孟)이 되어 <대장경> 간행사업에 관여했다. 뒤이어 선월사 오여사 용전사 운문사 등 주요사찰에서 주지 소임을 맡으면서 많은 제자를 양성했다. 1283년(78세)에는 국사의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늙은 어머니의 봉양을 위해 인각사로 내려왔다. 그곳에서 그는 구산(九山) 문도회를 두번이나 개최했다. 그 뒤 일연은 선문의 범위를 이끄는 열정을 보이다가 84세에 입적했다. '일연비문'은 그가 '멀리 목우(지눌) 화상을 이었다' [遙聞牧牛和尚]고 적고 있다. 가지산문의 사문인 일연이 사굴산문의 사문인 목우자의 법을 이었다는 것은 세계와 역사에 대한 그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연은 국사의 자리에 오른 뒤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인각사로 내려왔다. 사진은 인각사 전경.

당시 선종 승려들의 산문 귀속은 한번 정해지면 바꿀 수 없는 내규가 있었다. 산문의 이동은 왕명에 의해서만 가능했다. 쉬운 삶이 되던 해 남해의 두물산 김상압에 머물던 그는 '평소 꿈꾸어 오던 일'이라며 조동종의 주요전적인 <조동오위>를 중편(重編)하여 간행했다. 그가 가지산문의 신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미산문의 전적인 저작을 재편집하며 간행을 했다. 이러한 점은 <삼국유사>에 스며들어 있는 것처럼 일연의 선사로서의 자유로운 세계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종래의 연구에서는 그의 비문 속에 <삼국유사>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선사로서의 위의를 드러내는 엄숙한 행장 속에 정사와는 다른 야사류의 기록을 넣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기존의 관점과 달리 민지(閔漬)가 비문을 저작할 시기에 아마도 <삼국유사>가 공식 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지도 모르겠다.

일연은 우리 역사를 집성하여 전승하기 위해 젊은 시절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발로 뛰어다니며 여러 자료들을 수집했다. 그 자료들을 편집하고 보완하면서 깊은 애정 속에서 <삼국유사>를 집성했다. 이 텍스트가 비록 신라 중심의 기록이라 하더라도

여러 자료 수집하여 검토· 요약 정사의 무미건조함 탈피한 역사 중국 문헌 참고하나 주제성 확보

한 자 한 구절(一字一句)도 가벼이 보지 않고 당시에 남아있던 갖가지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요약 채용했다는 점은 여타의 저작들과 구분되는 이 저술만의 독특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편찬의 노력이 앞 시대 김부식의 <삼국유사>와 각훈(覺訓)의 <해동고승전>(1215)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독자성이 이 저술을 우리 민족의 경전이라 부르게 한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삼국유사>의 간행 연기

하나의 책이 간행되는 과정은 고대나 현대나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저자는 책의 집필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는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분석한다. 그 위에서 해당 원고를 집필하고 집필한 원고를 교정한다. 그 뒤에 원고를 판각한 뒤 인쇄 간행하는 과정을 거친다. 젊은 시절부터

역사에 대한 인식이 남달랐던 일연은 오랫동안 자료를 수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극왕들의 연대기인 '왕력'(王曆)편을 비롯하여 일반사서인 '기이'(紀異)편, 그리고 불교문화사인 '흥법'(興法), '탑상'(塔像), '의해'(義解), '신주'(神呪), '감통'(感通), '피은'(避隱), '효선'(孝善) 편 등은 모두 오랜 시간동안 자료를 편집해야만 가능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일반사서인 '기이' 편은 국사(國師)의 신분으로서 강화도에 옮겨진 여러 관찬사서들을 섭렵하면서 채록했을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삼국유사>는 유교적 편집 제강이 요구하는 편찬 목적, 절차, 양식, 자료의 선별 표준, 문장 표현의 체식과는 다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연은 애초에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 책을 서술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삼국유사>는 오히려 그러한 제강들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기술함으로써 정사(正史)의 무미건조함과 전편일률성을 벗어나고 있다. 그렇다고 전혀 새로운 창안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역은이는 역대 고승전의 제강을 주제적으로 흡수해 우리 사서의 편집 제강으로 발효 숙성시켜



일연다례제

냈다. 이것은 각 편명과 조목명의 부기에 서도 확인되고 있다. 평소 일연은 삼국 이전에 존재했던 여러 나라의 건국 신화를 밝히기 위해 이미 사라진 <구삼국사> 등의 사료를 발굴 정리했다. 그는 중국의 문헌을 참고하면서도 해당 항목의 주제성을 살려 애를 썼다. 중국의 자료는 단지 27종만 원용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자료는 50여 종이나 활용했다. 특히 고기, 향기, 비문, 고문서, 전각 등을 다양하게 인용했다. 해서 무엇보다도 이 책은 그 이름이 '세 나라의 빠진 이야기' 또는 '세 나라의 잃어버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더 많은 나라의 '되찾아야 할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이러하면 신라, 고구려, 백제 세 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 민족사의 시원인 고조선설 필두로 북부여 위만조선 마한 낙랑국 북대방 남대방 말갈 발해 예맥 옥저 졸본부여 동부여 변한 백제 진한 신라 가야 통일신라 후백제 후고구려(마진, 태봉), 고려 등 20여 나라의 건국 시조와 시조신 및 인물과 유물, 유적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의 이름을 새로 붙인다면 '삼국유사'가 아니라 '십국유사' 또는 '이십국유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이 저술의 의도와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다.

또 일연은 종래 신라 관계 불교 사적의 잘못 전해진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전편의 절반 분량을 이곳에 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유명 사찰의 사적과 이렇듯 승려의 행적, 명승고적에 관한 설화와 고대 조각, 건축 등을 다량 실었다. 나아가 그는 새로 수입된 외래 불교사상과 기존에 있던 사상 생활과의 모순 또는 동화 과정을 보여 주는 사상사적 자료들을 풍부하게 실었다. 마침내 일연은 이러한

'금상'에다 우리 민족의 심미안과 감수성을 담고 있는 향가 14수와 가사 두어 수 및 찬시 48편의 '꽃'을 덧붙였다.



고영섭 교수 / 동국대 불교학과

사찰등록안내

귀의 삼보하옵시고!

불철주야 불국토의 건설을 위하여 기도정진 하시는 전국 의 스님 및 법사님들 중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포교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면서 아직 사찰 등록을 미루고 계시는 분은 본 재단에서 사찰등록을 안내해 드립니다.

■ 사.암등록시
사암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 법사증을 교부함.

■ 신청자격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는 스님 및 법사, 또는 단체.

■ 참고사항
현재 각 종단에 사단법인이 아니면서도 사단법인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사찰 등록증을 발행하는 단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법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터넷등기소로 들어가 상호검색을 하시면 바로 법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잘 살펴보고 신중히 선택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재단에 사찰등록을 하시면 은행에서 사찰명의로 된 법인기부금통장과 은행에서 법인카드를 발급해 드리며, 사찰을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 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타 은행에서 신도님들이 사찰법인 통장에 입금 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평화재단

(우)110-816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75-1번지 부원빌딩 310호 전화 : 02)3217-3217입니다. / 이메일 : wbstf@yahoo.co.kr

